K-디스플레이, OLED 투자 온도차
삼성D '생산 확대' LGD '투자 철회'

삼성D, 아산공장 생산효율 개선
IT용 등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

LGD, 기존 설비활용 수요 대응
수익성 집중… 게이밍 시장 공략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시설 투자에서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신규 생산시설 확충에 나선 가운데 LG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 투자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설비 활용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9일 경기도 파주 P10 공장의 10.5세대 대형 OLED 생산시설에 대한 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 2019년 7월 초대형 OLED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를 결정한 지 약 7년 만이다.

LG디스플레이는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일정을 연기해 왔다. 지난 2023년 3월에는 투자 종료 시점을 2028년 3월로 연장했지만 이번에 최종적으로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투자 철회 배경으로는 대형 OLED 시장의 수요 둔화를 꼽았다. OLED TV 시장의 성장이 둔화하고 액정표시장치(LCD)에서 OLED로의 전환 속도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게이밍 OLED 모니터를 비롯한 중소형 프리미엄 제품의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신규 10.5세대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대신 기존 대형 OLED 생산능력을 활용해 시장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회사는 지난 19일 공시를 통해 기존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신규 투자보다 수익성 확보에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IT용 OLED와 폴더블 패널 수요 확대에 대응해 신규 생산시설 확보에 나섰다. 지난 8월 충남 아산 2단지의 A7 공장 건설 재개를 결정했다. 지난 2021년 공사가 중단된 지 5년 만이다. 오는 2028년 초 완공을 목표로 폴더블 OLED 생산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노트북 등 IT용 OLED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자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산 A6 라인에서는 8.6세대 IT용 OLED 양산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3년 해당 라인에 2026년까지 총 4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6세대보다 큰 유리기판을 활용해 노트북과 태블릿용 OLED 패널의 생산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1~9월 생산시설 신·증설과 보완 등에 2조4471억원을 투자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2조17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조1502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생산시설 투자 방향은 다르지만 양사 모두 게이밍 모니터 등 프리미엄 OLED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6'에서 글로벌 게임사들과 협력해 QD-OLED 체험 공간을 운영했다.

LG디스플레이도 게이밍 OLED 모니터를 주요 성장 제품군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지난 19일 투자 철회 공시에서 게이밍 모니터 등 중소형 프리미엄 OLED 수요 확대를 시장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OLED 수요가 TV뿐 아니라 IT 기기 등으로 확대되면서 업체별 투자 방향도 달라지고 있다"며 "생산시설 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신규 설비 확충과 기존 설비 활용 사이에서 수익성을 고려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글로벌리서치, 김원준대표 사장 승진

최진원 재무전략담당 사장 합류

삼성그룹의 경영전략 연구조직인 삼성글로벌리서치가 사장단 인사에서 기존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고 재무전략담당 사장을 새로 선임했다. 경영·전략 전문가인 김원준 대표이사(사진)의 사장 승진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출신 최진원의 합류로 계열사 경영 컨설팅 역량 강화에 힘을 실었다.

삼성글로벌리서치는 23일 김원준 대표이사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최진원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 경영지원담당 재경팀 부사장을 재무전략담당 사장으로 선임하는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글로벌리서치는 옛 삼성경제연구소를 전신으로, 그룹의 경영환경과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중장기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연구조직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기존 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재무 분야의 전문성을 보강해 계열사 경영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원준 신임 사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출신의 경영·전략 전문가로, 2022년 삼성글로벌리서치에 입사해 2023년 말부터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이번 인사에서는 그동안의 경영 역량을 인정받아 사장으로 승진했다.

최진원 신임 사장은 삼성그룹 회장실과 미래전략실을 거친 재무·전략 전문가다. 1989년 삼성전자 경리그룹에 입사해 미래전략실 경영지원팀과 전략팀을 거쳤으며, 2013년부터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경리그룹장을 맡았다. 이후 삼성전자 재경 조직에서 근무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인사에서 삼성글로벌리서치 재무전략담당 사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최 사장은 그룹의 핵심 전략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춘 만큼, 앞으로 계열사 대상 경영 컨설팅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삼성글로벌리서치는 조만간 부사장 이하 임원을 대상으로 한 2027년도 정기 인사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HMM, 넥스트파워 '그린세일링 서비스' 계약

저탄소 연료도입 비용 일부보전

HMM이 미국의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기업인 넥스트파워와 온실가스 감축량을 거래하는 '그린세일링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HMM의 그린세일링 서비스는 해상운송 과정에서 저탄소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줄인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주에게 이관하는 친환경 서비스다. 이를 통해 글로벌 화주들은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다.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넥스트파워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와 스마트 에너지 설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넥스트파워는 이관받은 감축량을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의 회계 및 보고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HMM도 저탄소 연료 도입 비용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게 돼 선순환 투자 구조를 구축하게 됐다.

HMM은 2023년 독일 물류기업 헬만을 시작으로 2024년 스웨덴 이케아, 2025년 나이키에 이어 이번 넥스트파워와의 계약까지 성사시키며 글로벌 화주와 다양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풍력보조추진장치를 탑재한 HMM의 5만 톤급 중형유조선 '오리엔탈아쿠아마린호' /해진공

HMM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탄소 연료 도입 다변화 등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친환경 정책을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MM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4조 1271억원, 영업이익 1조 394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2%, 영업이익은 370% 증가했다. 3분기 영업이익은 2024년 3분기(1조 4613억원) 이후 최대치다. 당기순이익은 3038억원에서 1조 5352억원으로 405% 늘었다.

/양성운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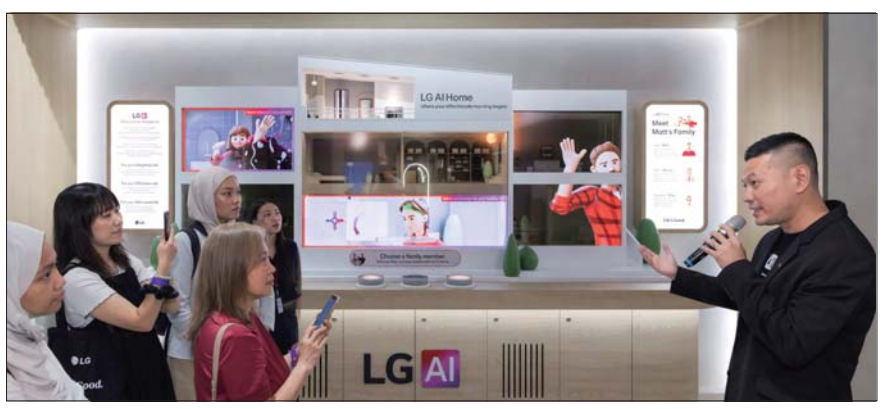
LG전자, 싱가포르 등 글로벌 AI홈 사업 속도

싱가포르에 AI 홈 체험공간 마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확대 구축

LG전자가 싱가포르에 인공지능(AI) 홈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지 주거 환경에 맞춘 가전과 AI홈 솔루션을 선보이고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최근 싱가포르 복합 쇼핑몰 '밀레니아 워크(Millenia Walk)'에 AI홈 체험에 특화된 지역 거점 매장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 시장에도 체험공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약 140㎡ 규모로 조성된 체험공간에는 주방과 세탁실, 드레스룸, 거실, 아이 방 등 실제 생활공간을 구현했다. 투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활용한 디오라마를 통해 AI홈의 개념을 소개하고 가전제품 간 연결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싱가포르 대표 복합 쇼핑몰 밀레니아 워크(Millenia Walk)에 'AI홈 특화 거점 매장을 열었다. LG전자 직원이 투명 올레드로 구현한 디오라마를 활용해 AI홈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방문객들은 LG 씽큐(ThinQ)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연결하고 제어할 수 있다. 세탁물 특성에 따라 세탁·건조 강도를 조절하는 AI DD 모터와 6모션 기술 등 핵심 부품 기술도 소개한다.

아울러 현지 주거 특성을 고려한 가전제품도 전시했다.

이군호 LG전자 싱가포르 법인장은 "현지 주거 환경과 고객의 생활방식에 최적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LG전자의 차별화된 AI홈 경험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화학, 김동춘 사장 유임… 고부가 소재 사업 속도

반도체·전장용 소재 연구개발 집중

LG화학이 김동춘 사장의 유임과 함께 고부가 소재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에 속도를 낸다. 범용 제품의 공급과잉으로 석유화학 업황의 회복이 더딘 만큼, 김 사장 체제에서 여수 설비 통합 등 범용 사업 재편을 이어가면서 반도체·전장용 소재에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취임 이후 반도체·인프라, 모빌리티·로봇 소재와 항암 신약을 LG화학의 핵심 성장 분야로 제시하고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다. 기존 석유화학 사업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설비를 정리하는 한편 반도체 세정용 소재와 전기차 타이어용 합성고무 등 고부가 제품의 매출 비중을 높이고 있다.

첨단소재부문은 반도체 소재를 중심으로 외형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현재 1조원 규모인 전자소재 사업을 2030년까지 2조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패키징용 접착제와 열관리 소재, 유리기판 등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소재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2035년까지 투입하는 연구개발비 15조원 가운데 약 70%도 반도체·모빌리티·로봇 소재 등 육성 사업에 배분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중공업, 이왕근 신임 대표 발탁

설계 등 조선해양 사업 경험 풍부

삼성중공업이 설계·생산 등 조선해양 사업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이왕근 부사장(사진)을 새 수장으로 발탁했다.

삼성중공업은 이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신임 대표이사는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 석사 출신으로 1996년 삼성중공업에 입사했다. 이후 해양설계 담당, 해양사업담당, 생산담당, 조선소장 등을 거쳐 지난해 말부터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조선해양부문장을 맡아왔다.



이 신임 대표이사는 설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기술 전문가로, 사업관리와 생산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조선해양사업 전반의 경험과 경영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중공업은 이 신임 대표이사가 조선해양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부사장 이하 2027년 정기 임원인사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혜온 기자